

1인당 간편식 한달 평균 7만5000원 샀다

농촌경제연구원, 광주·전남 주민 가공식품 소비자 실태 조사 응답자 49.7% 주 1회 이상 구매...동네슈퍼서 구입 41.6%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간편식 구매를 위해 한달 평균 7만5000원 가량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공식품을 사는 빈도는 줄었지만 대신 온라인 구입 비중이 확대됐다.

이 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지난해 7~9월 광주·전남 16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 결과에 담겼다.

지역민들에게 평소 가공식품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는지 물어보니 응답자의 절반 가량(49.7%)이 '주 1회 이상' 산다고 응답했다.

'주 1회' 구매가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고 ▲주 1회 29.2% ▲월 1회 15.5% ▲주 2-3회 5.6% ▲월 1회 미만 5.6% 순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공식품을 산다는 응답률은 지난 2019년에 벌인 동일한 설문 때보다 줄어 들었다.

지난 2019년 주 1회 이상 가공식품을 구입한다는 응답 비중은 62.7%였다. 세부적으로는 ▲주 1회 44.1% ▲주 2회 19.3% ▲주 2-3회 18.6% ▲월 1회 16.8% ▲월 1회 미만 1.2% 등 순이었다.

1년 새 '주 1회 이상' 산다는 응답률은 13.0%포인트 감소하고, 2주 1회 구입 비율은 9.9%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민들이 가공식품을 주로 사는 곳은 '동네슈퍼'

였다.

가공식품 구입처 1순위로는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이 41.6% 비중으로 꼽혔다. 이어 이마트·하나로클럽·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이 26.1%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 21.1% ▲전통시장 8.8% ▲통신판매 1.2% ▲편의점 1.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가공식품을 구매했다는 응답자 비중은 16.2%에서 20.5%로, 1년 새 4.3%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가공식품 온라인 구매에 대해 '대부분 온라인으로 구입했다'는 응답률은 1.2%였고, '특정 상품만 온라인으로 구입했다'는 응답 비중은 19.3%를 차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편리성 때문에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

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 구매 주기는 가구원 수가 많을 수록,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역민들은 한 달 평균 7만5012원을 간편식 구매에 지출했다.

주관식으로 응답한 지역민들은 많게는 한 달 50만원에서 적게는 5000원 정도 간편식을 사는 데 돈을 썼다.

코로나19 사태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지역민도 늘었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있다는 응답률은 77.0%로, 전년(72.0%) 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

한 해 동안 구매한 건강기능식품 개수는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자신이 먹기 위해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한 해 평균 2.43개로, 전년 평균 2.38개 보다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명절 선물 강자 굴비 돌아왔네"

이마트, 굴비 매출 30.5% 급증

이마트는 올해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 기간 동안 굴비 매출이 전년보다 30.5% 급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마트가 예약 판매 기간인 지난해 12월2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32일 동안 매출을 분석해보니 굴비 선물세트는 1년 전보다 30.5% 늘었다.

이는 지난 2018년 설 굴비 매출이 전년 대비 20% 감소한 것과 반대되는 양상이다.

이마트는 지난 2019년 설 3.2% 매출 증가에 이어 올해도 굴비 매출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설 사전예약 수산세트 물량 가운데 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2.5%에 달한다.

지난해 참조기 어획량이 크게 늘면서 굴비 산지 가격은 10-15% 가량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참조기 어획량은 3만3230t으로, 2019년 한 해 참조기 어획량 2만5788t 보다 28.9% 가량 늘었다.

굴비의 원재료인 참조기 가격 하락에 따라, 이마트 굴비 선물세트 가격 역시 내려갔다. 이마트 굴비세트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명품 골드 영광참 굴비 2호'의 경우, 행사카드로 구매하면 20% 저렴한 22만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는 지난 2019년 추석부터 굴비의 비린내를 없애 '연일 굴비 세트'를 자체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졸업·입학' 특수는 없지만 닫힌 지갑 열자

유통업계, 새학기 판촉전 돌입 노트북·예코 책가방 등 선보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폭발하면서 여느 해와 같은 '졸업·입학' 특수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중 의류비 지출을 전망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년 전보다 14포인트나 떨어졌다. 전달보다는 7포인트 하락했다.

노트북을 포함한 내구재 지출 전망도 전년보다 14포인트 급락했고, 전달보다 8포인트 떨어졌다.

연초에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업체 대부분에서 입학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업종인 소매·유통업계는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고 세밀한 정책지원이 부족해 경기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유통가는 소비자의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해 다양한 새학기 판촉을 벌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스포츠 매장은 새학기에 맞춰

책가방과 운동화 등 다양한 상품으로 진열대를 채웠다. 5층 'MLB' 매장은 교복과 잘 어울리도록 밑창을 두툼하게 만든 키 높이 운동화를 선보이고 8층 아동매장에서는 형형색색 책가방을 내놓았다.

올해 새롭게 나온 책가방들은 화려한 색상에 가볍고 다용도 주머니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친환경 추세에 따라 '노스페이스' 매장은 페트병을 재활용한 '예코' 책가방을 새롭게 내놓았다.

(주)광주신세계는 올해 졸업과 신학기를 맞아 다양한 노트북 할인전과 행사를 마련했다.

8층 생활전문관에 자리한 삼성전자는 노트북 신제품을 사면 무선 이어폰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펼친다. 한컴 오피스 패키지 제공, 콘텐츠 최대 1년 무료 사용 등 혜택도 있다.

새 노트북을 살 때 쓰던 노트북을 반납하면 중고가를 매겨 보상해주는 '노트북 보상 원정대'도 운영하고 있다. 제조사나 노트북 사양에 따라 보상 가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고장난 노트북도 최저 1만원 보상한다.

본관 3층에 있는 '질스투어트'는 새학기 인기상품을 28일까지 20% 할인 판매한다. 10~20대에 인기가 많은 캐주얼 의류 '널다'도 같은 기간 20% 할인하며, 신관 지하 1층에 있는 '피터젠슨'은 인기 상품 제한전을 펼친다.

/백희준 기자 bhj@



27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지하 1층 와인 매장에서 다양한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푸드에비뉴 맛집투어'

식품관 리뉴얼...3월7일까지 사은행사

엄선한 맛집으로 식품관을 채운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3월7일까지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행사를 벌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 1층 프리미엄 식품관 '푸드에비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3월7일까지 '롯데백화점 맛집투어'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11년 만에 예산 70억원을 들여 지난 22일 대대적인 재단장을 마친 롯데백화점 식품관은 델리(음식) 매장 규모를 기존보다 50% 확대했다.

1인 사브사브 전문점과 '부산어묵' 등 맛집으로 꼽히는 브랜드가 대거 들어섰다. 광주 최초의 브런치 카페인 '아필코' 등도 매장을 채웠다.

서울 종로 익선동 만두전문점인 '창화당'과 제주 흑돼지 수제버거 맛집인 제주 서귀포의 '88버거' 등도 자리 잡았다.

행사 기간 동안 푸드에비뉴에서 식사를 한 뒤 매장에서 '확인도장'을 모아 9층 사은행사장을 찾으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3회 방문하면 갑티슈(3입)를, 5회차·7회차 이용 고객에게는 5000점~1만점 엘포인트를 증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

홍술·혼술엔 와인이 '딱'...광주신세계 지난해 매출 60% 급증

설 명절 다양한 와인 선물세트 마련

백화점 업계가 코로나19 경기침체 속 '효과 품목'으로 꼽히는 와인 상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주)광주신세계는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와인 매장이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와인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신세계의 지난해 추석 판매 기간(9월14일~29일) 와인 매출은 1년 전보다 77% 급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와인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60% 이상 늘었다.

이 매장은 올해 설도 '비대면 명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콕' 추세에 맞춘 와인 상품을 마련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